朝鮮日報 朝刊

社說

聯盟規約의發動如何

伊에紛爭의和協努力失敗

一

二十四日에 開催된 伊에紛爭에對한 聯盟의 五國委員會는 드되어 和協努力은 全然 失敗에도라가다는 報告書를 採擇하고마럿다 이로서 伊에紛爭에對한 和協解決의 餘地는 完全히 업서젓다고 斷言할수업지마는、적어도 問題가 다시 理事會로 返還되엿다는 事實은 問題의解決이 實質的에서 形式的으로轉換되엿다는點에서 一層 重大性을 가지게되엿다。元來 和協을爲한 五國委員會는 過般의 聯盟理事會가 和協解決方式을 伸縮性잇게 또한 簡易하게 하기爲하야 任命하얏든 것으로 그것은 伊太利의 全面的 否定態度에依하야 和協에對한 聯盟規約第十五條의 어느條項도 基礎로하지안코、一種의 非公式的인專門的 和協斡旋委員會와 가튼形式으로 되엿든것이다。그런데이제 實質的으로 問題의 和協解決을 企圖하든 同委員會가 全然失敗에 도라가스즉、問題의轉換은 自然 法理的 拘束을 加하게될것이 當然의 推移가될것이다

二

伊에紛爭의 和協解決은 聯盟規約에 基하야 할時는 第十五條中의 第三條와第四條를 適用케되는것인데 第三項은 和協努力이 奏效되는 境遇에 適用될것임으로 事實上 和協努力이失敗된 오늘 適用될것은 第四項이다。이것은 英國代表部가 最初에 主張한것으로 이條項을適用케되면 그 明文『紛爭이 解決되지못하는時는 聯盟理事會는全會一致 又는過半數의 表決에基하야 그適當다고 認하는바에따러當該紛爭에 關한 事實及說明 및그解決條件을 記載한 調書를 公表할것이라』는 要旨에따러 紛爭當事國의 和協條件受諾與否에 不拘하고 聯盟理事會는 一方的으로 適當다고 思惟하는 解決方式을公表하게되는것이다。따라서理事會對紛爭當事國의 關係는 相對的折衝에서 絶對的關係로 變한다 第四項에依한 調書가 公表된後는 이것을受諾하고아니하는것은 紛爭當事國의自由이다 脫退하는것도 自由이다。그러나 聯盟規約第十五條에 依하야 調書를 受諾치안는 紛爭當事國은 此를 受諾한紛爭當事國에對하야 戰爭에 訴치안홀 義務가생긴다 聯盟을脫退하드래도 그義務가 업서지지 안는것은 勿論이다。

三

그리하야 戰爭에訴하는 紛爭當事國은 모든聯盟國에 對하야挑戰한것으로 認定되고 聯盟規約第十六條에 依한 制裁規定의發動을 보게되는것이다。伊에紛爭을 第十五條四項에依하야 審議할時에 伊太利가 聯盟의解決方式을 受諾치안코 戰爭에訴한다면 制裁規定發動은 法理上 必至의것이될것은 明若觀火하엿이다。그러나 周知하는바와 가티 聯盟規約 第十六條制裁 規定은 그軍事的 經濟的 어느것에 不拘하고 못솔리니氏의 말한바와가티 一次도 適用못하여본 規約인만큼 制裁規定의 發動이란容易한일이아니다。그럼으로 서두로게 第十五條四項에依한 伊에紛爭審議를 開始하얏다가 伊太利가 强硬態度를 固持하는限 第十六條를 發動하지아니치못하게 되고 伊太利의 聯盟脫退를 招來하는것보담은 聯盟의權威도保持하고 伊太利의 體面도 세워서 實行性의 制裁規定의 發動을 에 이를과가튼 事態의 惡化過程을 取하지안코 亦是 實際上 實質的解決을 圖하려면 聯盟을 左右하고 에디오피아에對한 條約國인 英佛伊三國會商으로 問題는 다시 還元되지안홀가? 二十六日의 聯盟理事會의 結果는 注目할만한것이다

聯盟理事會에서 非公開會議開催

알로이지伊太利代表는缺席

五人委員會報告審議

【쥬네브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의聯盟理事會는 事務總長室에서 豫備會議後 定例理事會議場에옴머 午前十一時十五分 公式會議를 開하고 爲先 非公開會議에서 阿片問題其他 日程을 處理한後 十一時四十分 公開會議에 드러가는데 알로이지伊代表는 缺席하엿다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國際聯盟理事會는 二十六日午前十時十五分(日本時間午後六時十五分)부터 일부러 理事會議場이아닌 聯盟事務局二層 알쓸事務總長室에서 爲先 非公開會議를 開하고 伊에紛爭에 關한 五國委員會의 報告에 對하야 審議를 開始하엿다

規約十五條適用 勸告案起草決定

十三人委員會組織

【쥬네브二十六日發電通】聯盟理事會는 伊에紛爭審議一時間十分後 伊太利를 除한 十三國代表가 一致하야 左의 決定에 到達하엿다

一、伊에紛爭에 對하야 聯盟規約第十五條第三項及 第四項을 適用함

一、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하야理事會는 紛爭當事國인 伊太利를 除한 全員으로서 勸告를 包含한 報告書起草委員會를 組織함

一、十三國起草委員會는 遲滯업시 그事業을 開始하고 (第一回會合은 二十七日)完成되는대로 이것을 理事會에 提出하고 理事會는 이것을 兩當事國政府에 提示하고 勸告의 實施를 하기로함

一、第十五條第三項에 依한 五國委員會는 依然 이것을 存置하고 機會잇슬때마다 그目的인 和協을 爲하야努力하기로함

에全國的動員令 發令猶豫

【아디스아베바廿五日發電通】確聞하면 에디오피아政府는 伊에開戰의 不可避를 覺悟하고 紛爭和協解決에對한 關係方面에 支障을 與하지안키爲하야 全國的動員令의 發令은 保留하고잇스나伊太利軍이 集結한 國境地方에는 繼續動員하고잇다 이미此等地方에는 三分之二乃至 四分之三이 動員한것이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로서는 右動員은 決코好戰的 제스추어가아니라 全然必要한防衛的 準備에 不過하다고 하고잇다 그리고國境地方에서 不祥事가 發生될危險을 避하기爲하야 軍隊는國境線三十粁線에 머무러 잇다고한다

佛伊兩首相會見 佛國政府는否定

【巴里廿五日發聯合】五人委員會는 和協工作을 斷念한結果 伊에兩國의 紛爭處理問題는 再次 英、佛、伊三國政府의 直接交涉에 移牒될 形勢에 벌서 라발首相은 親히 뭇솔리니 首相과 會見하고 膝套交하야 平和解決案을 檢討할것이 아닌가 傳하게되엿다 但 佛國政府當局은 二十五日夜 右報道를 正式否定하엿다

獅子도奮起! 에國首都活劇幕劇

【아디스아베바二十五日發聯合】伊太利軍의 集結報道가 國都아디스아베바의 人心을 動搖식히고잇는此際 皇帝하일셀라시에 一世의 愛撫하는獅子가憤然 우리를 제치고 宮廷廣場으로뛰여나와 小姓一名을 殺害한다음 다른二名을 負傷케하고 羊豚等을 一擊하야 大混亂을 呈하엿다 皇宮警察當局에서는 機關銃으로 겨우 이것을 射殺하엿는데 宮內外는 이不意의 椿事에 極度로 驚愕하야 非常한 混雜을 呈하엿다

地中海艦隊主力 希臘領海에集中

英海軍省代辯者談

【倫敦二十五日發聯合】英國政府는 地中海各根據地에 待機하고잇든 地中海艦隊主力을 希臘領西方에集結하기로 決定하엿다 二十五日 海軍省代辯者는 如左히 말하엿다 英國政府는 地中海艦隊主力을 希臘領海西岸에 集中할 方針이다 同方面에 出動할 艦艇은 主力艦二隻 航空母艦一隻 巡洋艦八隻 驅逐艦二十八隻總計四十隻이다

舞鶴要港部擴張

【東京電話聯合】海軍省에서는軍事上의 必要로 舞鶴要港部를擴張하야 十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右에伴하는 『大正十二年 勅令第五十七號 京都府加佐郡舞鶴을 要港으로하야境域을 定한다는件』中 改正勅令을 二十六日 官報로써 公表하엿다

英國態度如何로 伊에紛爭은落着

英佛提携强化企圖

佛國은 將來 歐洲自體內에 惹起될 紛爭에 對하야 聯盟規約을 如何히 適用할 것인가고 英國에 質問

【쥬네브廿六日發電通】佛國代表部의 權威잇는 側에서 伊에紛爭에關한 主局을 움즉일 열쇠는 이제 倫敦으로옴기게되엇다는 見解를 抱懷하고잇다 그것은 極히重要한 交涉이 英佛間에 行하고잇서서 英國은 이에 答할 立場에 잇스므로 써다 周知한바에 依하면 將來 歐洲自體에서 紛爭에關하야 聯盟規約을 如何히 適用할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하야 英佛間의 意見交換을 거듭하고잇는데 萬若 右에 對하야 滿足한 諒解가成立되면 에디오피아問題는 右에包含되지안한 外國問題로 取扱할수 잇슬것으로 이때까지 英國이 歐洲諸國間의 問題에 對한 聯盟의 權威失墜를 두려워하야 伊太利의 規約違反을 防止하려고한데 對하야 態度豹變의 機會를 生할것으로보인다 問題의 焦點은 英佛의 聯携强化에 依하야 歐洲問題에 關한 限 聯盟의 强力한 背景을 만드는데잇는데 從來 英國은 호어 英外相의 聯盟總會의演說以上으로 實質을 與하지안헛스나 지금 어떠한 聯携强化가 必要하게되엇슴으로 佛國側의 報情에 依하면 右는 聯盟規約에 依한 一般的義務以上으로 一層 强硬한 協同動作을 約定하는것이 目標이다

米國飛行家가 飛行機提供申請

에디오피아政府當局에

【아디스아베바廿五日發電通】伊太利側에 數百機의 飛行機로써國境方面을 脅威하고잇는데 對하야 에디오피아側은 거의 飛行機가 皆無에 가까운데 米國人飛行家쥬메리氏는 二十五日 아디스아베바政府에 對하야 에디오피아軍을 도우기爲하야 飛行機十二機를 提供하고싶다라고 申請해왓다 提供條件은未詳이나 十二機中 三機는 이미 지부티에 到着하엿는데 解體된 그대로다 그리고 同氏는 今回의 計畫은 全然 個人的인것으로 米國政府의 背景은 업다고 强調하고잇다

北西治安工作에關해 土肥原秦氏等이協議

【北平二十六日發聯合】奉天特務機關長土肥原少將及 北平駐在武官高橋少佐는 二十五日前後 張家口에 到着하야 即時 察哈爾省政府主席秦德純氏及 蕭振瀛氏等 首腦部와 會見하고 察哈爾綏遠兩省의 治安工作을 中心으로 重要協議를 遂하얏다는바 同協議內容은 如左하다

一、去六月末 北平에서 土肥原少將과 秦德純氏間에 締結된 察哈爾停戰協定中 未解決事項의 實行을 促進할것 特히察哈爾省新非武裝地帶에 察東民保安隊를 組織할것

一、綏遠에 侵入하야 西進中인 共産軍에 對해서는 有効適切한 方法을 講究할것

一、蒙古地方自治政務委員會及綏遠省政府間의 紛爭激化에 際하야 關係收拾策을 講究할것

蒙古民保安隊의 組織에 對해서는土肥原少將、秦主席間에 諒解點이 發見되엿다고 解釋된다

穀類以外主要食料 配給制度를廢止

穀類同樣販賣制度施行

【莫斯科二十五日發聯合】蘇聯邦共産黨中央執行委員會와 人民委員會는 明年一月一日를 期하야 穀類以外의 主要食料의 配給制를 廢止하고 穀類同樣販賣制度를 施行하기로 決定하야 二十五日 右廢止에 關한 法令을公布하엿다

共産軍北漸 綏遠省에侵入

【北平二十五日發聯合】四川共産軍의 大部隊는 甘肅南部에 達하엿는바 宣教師는 全部 蘭州로 撤回하엿다 一方中國側의 諜報에 依하면 陝西省內의 徐海東 劉志丹 兩共産軍은 張學良軍等의 南方으로부터서의 攻擊을맛나 바야흐로 綏遠省의 一部로 侵入하려하는 形勢를 取할 傅作義 王靖國等은 그 對策을 協議中이다 그리하야 喧傳되는 蔣介石氏의 共産軍北方追放政策說을 證明하는 徵兆를 示現하야 北中의 實權者뿐만아니라日本軍當局도 緊張되여잇다

內蒙自治省經緯發表

【北平二十五日發聯合】綏遠當局의 紛爭에 對하야 內蒙自治政務委員會側의 發表에依하면 綏遠省當局은 蒙古人保安隊에 關하야 對抗的 自衛軍을 組織하며 有力한 軍隊를 派遣하야 軍事的重要地點을 占據한後 蒙古人의 同地方進出을 阻止하고잇다 그리고 第七十師의一部隊는 蒙古人의 陣營을 包圍하고 石子의 陣營에 參加하여잇다 이러한狀態로 萬若 兩者서 衝突을 惹起할수도잇스나 그것은 全然 綏遠側의 責任이다

機關說撲滅에關한 政府最高策確立

陸海兩相提案의三項目에同意

閣議決定事項으로

【東京電話電通】大角 川島兩相은 二十五日 午後一時半부터의 閣議에서 如左한 機關說撲滅國體明徵에關한 三項目의要求를 提出하고 大角海相이 說明하야 逐條的으로 岡田首相、小原法相及 全閣僚의 所見을 求한結果 滿場一致同意함에 이르러 이에機關說撲滅 國體明徵에關한 政府의 最高方針이 確立함에 이르럿다 即 軍部兩省은 閣議席上 小原法相으로부터 美濃部氏가 聲明을 取消함에 이르기까지의 經緯에對하야 說明이잇슨後 大角海相이 軍部를 代表하야

一、美濃部氏의 心境에對하야는 二十一日法相談의 形式으로 公表된 文書에도 오히려 相當히 世上에 疑惑을 품게한것이잇서서 這間의事情을 詳細히 發表할 必要가잇고

二、機關說에對한 政府의所見은 陸海軍大臣의 所信과 一致하다고 생각해서 조흐냐

三、機關說撲滅의 措置에對하야 政府는 今後繼續하야 善處함은 勿論 從來로 해온바이고 一般에 公表하야 世上의疑惑을 速히 푸는手段을 講究할 必要잇다고 信한다

는 三要求를提出하고 第一項에 對하야는 小原法相으로부터 可

니 岡田首相은 同一精神이라고 答하야 滿場一致 異議업시 全閣僚의 承認으로 閣議決定事項에 이르럿다 更히 第三項도 異議업시 可決되엿스나 機關說에 對한 處置에 對하야는 政府는 今後繼續하야 善處하겟다는 字句는 相當히 含蓄이 잇는것이라고 解釋된다

齊藤前首相 廿七日夜東京發

【東京電話電通】前首相齊藤實子는 朝鮮施政二十五週年記念式에 參列키爲하야 二十七日午後十時 東京驛發列車로 西下하야 二十九日午後三時 京城着豫定이다

夕刊後市況 廿六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五七·〇	一五七·四	一五六·四
日產	八〇·〇〇	八〇·五〇	八〇·〇〇

◆大阪短期◆

	後引	高値	低値
帝人新	九〇·五〇	九〇·九〇	九〇·五〇
日鑛	一二一·〇	一二一·六	一二〇·八

◆大阪短期滿限◆

大新	九六四〇	(不變)
鐘新	一二六九〇	(不變)
日產	八二二〇	(不變)
東新	一五七〇〇	(一〇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七〇〇 先限八六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六四六〇 先限 六六八〇

鐵路總局에서 料金統一計畫

【奉天二十六日發聯合】鐵路總局에서는 滿鐵社線과 國線의 貨物運賃大改正과 同時에 總局設立當初부터의 懸案인 全國鐵路料金運賃의 統一과 合理的改正을 斷行하기로 決定하고 그準備를 急히하고잇던바그實施期는 十一月一日 或은十二月一日로보이며 新貨率은 그基準을 國線中의 最低率이 되여잇는奉山線에두고 此에滿鐵料金을參酌하야 結局一等一키로 四錢五厘二等三錢 三等一錢七厘 乃至八厘으로하는模樣이다

國民黨更生次 나치스黨則採用

蔣氏親友賀耀祖氏言明

【上海二十六日發聯合】當地外字紙의 報導에 依하면 土耳其駐箚中國公使賀耀祖氏는 二十四日 쥬네브에서 『中國國民黨更生을爲해서는 나치스黨則을 採用할바계업는데 萬若 必要하면 나는 來十一月二十日 南京에서 開催되는 五全會議에 出席하야 나치스黨則에 模倣하야 國民黨規의 改革決議案을 上程 하겟다』라고 聲明하엿는데 蔣介石氏와 密接한 關係를가진 賀氏의 이聲明은 자못 興味로써보고잇다

에問題와英佛伊

資源獲得을目標 廻廊計畫에着手

② 徐椿

現在 伊太利가 에디오피아를 領有하게되면 어든 實質的利益의 가지가지를 드러보면 如左하다。

▲富源의獲得 現代式工業에 不可缺의 要素라고할만한 鐵、石炭、石油의 어느것이나 다 貧弱한 伊太利는 이것을 植民地에서 어들수밧게 업다。그런데 伊太利가 現在가지고 잇는 植民地에는 이것이 업다。그러나 萬若 에國을領有하게되면 伊太利는 그必要로하는 資源의 一部分을 어들수가 잇다。에國은 面積三十五萬平方哩、人口一千萬의 나라로서 主業은 農業、牧畜인데、珈琲、獸皮、蠟、象牙、棉花等을 多量으로 産하며、伊太利에 업는 鑛物도 相當히 地下에 埋藏되여 잇다。따라서 에國은 伊太利에 對하야 好個의 原料供給地、製品輸出市場、過剩人口移植地가 될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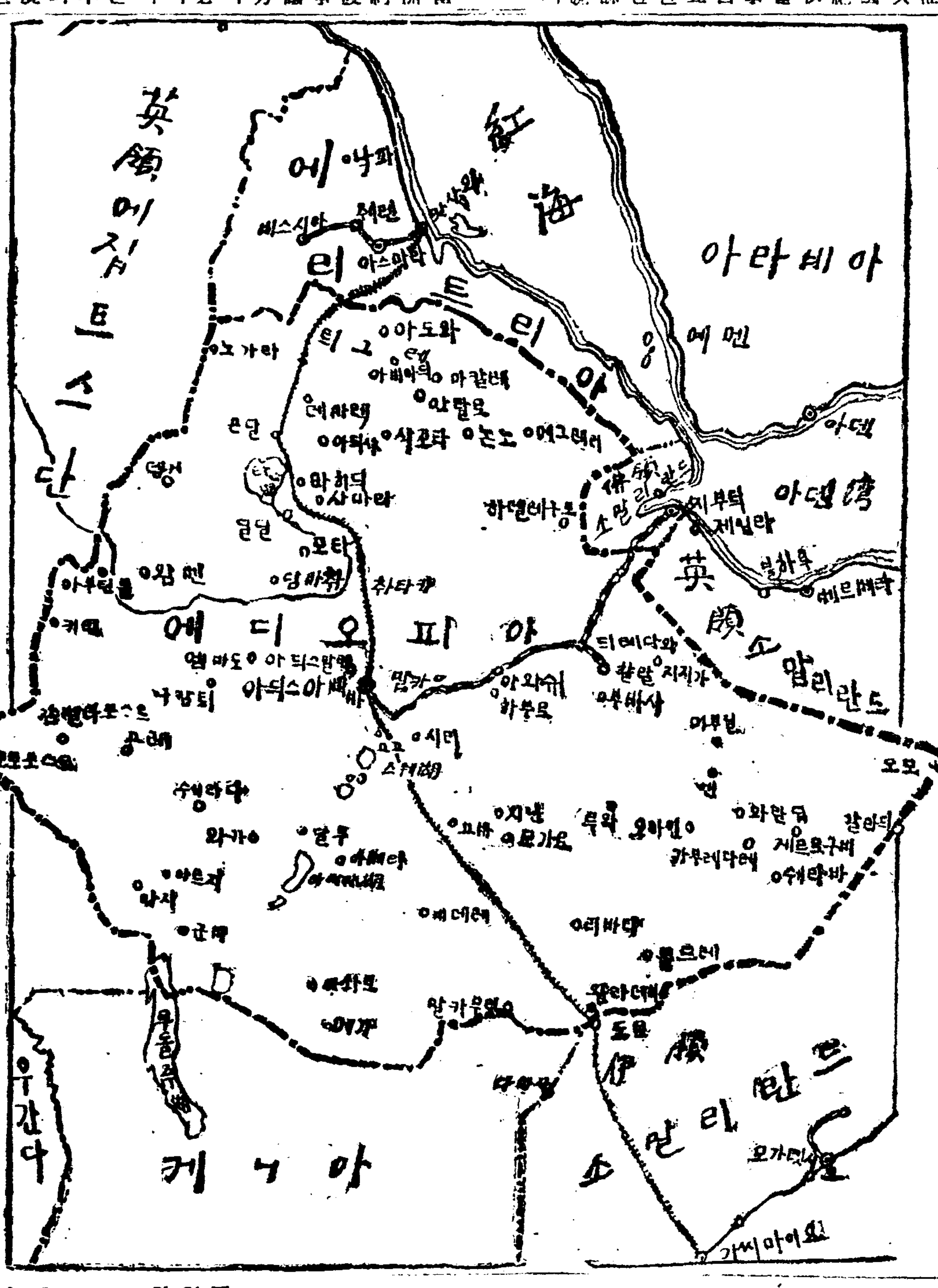
▲兩地의連續 現在、伊太利領으로잇는 에리트리아와 伊領소마리(소마리란드의略稱)와의 兩地는 內陸側으로는 사이에 에國이 잇기때문에 海岸側으로는 中間에 佛領소마리와 英領소마리가 잇기때문에 兩地間에 相當한 距離가 斷絶되여잇다。그런데 伊太利가 이 兩植民地를 連續시키려는 意圖는 적어도 三十年來로 抱持하고 잇다。例하면 千九百六年의 에國에 關한 英佛伊三國條約을 보면『伊國에 對하야는 아디쓰·아베바의 西方을 貫通하야 伊領에리트리아와 伊領소마리를 聯絡하는 鐵道敷設權을 承認함』이라는 條文이 잇고 또 千九百二十五年의 에國에 關한 英伊覺書라는것을 보면『그대신 伊國이 에리트리아國境으로부터 에디오피아를 縱貫하야 伊領소마리에 達하는 鐵道敷設權을 要求할時는 英國은 伊國의 要求를 支持할것』이라는 條文이 잇슴을 보는데、이 條約、覺書는 둘이、다 前者는 에國의 反對로、後者는 佛國의 干涉으로 因하야 實現되지 못햇스나 이것에 依하야 우리는 에國에 對한 伊太利의 最少限度의 欲望이 奈邊에 잇는가를 推知할수가 잇슬것이다。即、에國을 아조 領有할수가 업스면、兩殖民地聯絡을 爲한 陸路交通權及이에 附隨한 經濟開發權이라도 어더야 되겟다는 意圖의 表現이다。

▲兩地의開發 에國의 領有는 에리트리아와 伊領소마리의 産業開發을 可能케할 絶對條件이 된다。例하면 有名한 타나湖의물을 에리트리아로 誘導하야 灌漑用水를 만들면 現在、荒漠한 에리트리아의 土地는 一變하야 豐饒한 棉花栽培地가 될수잇다。

▲伊廻廊完成 勿論、獨立國 에디오피아를 업수히녀여 봄 말이나 伊太利人은 에리트리아와 伊領소마리와의 兩地에다가 에디오피아까지를 너허 가지고 이것을 伊太利廻廊이라고하며 또는 이三地에다가 伊領토리포리(리비아)까지를 너허서 伊太利廻廊이라고 稱하야 이 廻廊計畫의 完成을 目標로 今日까지 努力해 왓섯다。그런데 이제 에디오피아를 손에 너흐면 이것은 狹義의 伊太利廻廊의 完成이되며、廣義의伊太利廻廊의 實現의 第一步가 되는것이다。

▲對英牽制策 伊太利로서 萬若、에디오피아를 領有하야 此地에 相當한軍事施設을 해 노흐면 이것으로서 亞弗利加에 植民地를 가진 諸國、特히 英國을 軍事的으로 크게 牽制할수가 잇다。그는 西南으로 빠더서 英領케니야、우간다等地에 侵入할수가 잇스며、또는 西北으로 빠더서 英領수단과埃及을 脅威할수가 잇스며、또는 東으로빠더서 스웨즈運河及紅海를 支配하야 英國의 印度로의 航路를 遮斷할수가 잇다。

勿論、以上列記의 實利的諸理由外에 (一)伊太利의 國內財政經濟의 破綻의事情 (二)反파씨즘派擡頭의 抑壓及 파씨즘의 權威擁護 (三)무쏠리니個人의 地位擁護及 名譽慾等等의 理由가 잇슬것이나 此等諸理由는 一切로省略해버리고、다음本問題에對한 英國의立場으로 넘어가자。(地圖는에디오피아王國)



大阪着名問屋案內
製材機械同附屬品一式 鋸機
角鋸機
各種木工機械鋸類輸入及製作
商報送呈
合資會社 楠田竹治郎商店
大阪西區本田町通一

全朝鮮에 益益名聲과共히 品優良으로 風靡하는 ゼスター
高級 萬年筆을 都賣廉價提供
(新版カタログ送呈)
大阪北區善源寺町四丁目
澤井商會製作所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〇二八〇四番

袋物眼鏡バント
製造卸問屋
大阪市浪速區河原町千日前
島田商店
(商報送呈)
電話戎三九八六番 振替大阪六四八二〇番

先づ健康の爲め
醫學博士 木下東作先生推獎
藥局經營用 不老ブラン Aヤワラカ Bナカホド Cカタイ
百貨店 藥店ニ有リ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眼鏡小賣店이 參拾八圓으로훌융히開業되는大阪菊田屋眼鏡店의犧牲的販賣이오니奮發하야申込하시라
絶對 責任
大阪市南區順慶町壹丁目 菊田屋商店

菓子問屋
大阪市南區末吉橋
三浦三友堂
電話東八三四番 振替大阪五一三九八番

各國染料直輸入
人食料、紅、靑、黃 明太魚卵着色 고초가루等着色 製菓用着色 飮料水用着色 其他無害色素
(商報送呈)(見本三十錢要)
大阪市南區大和町壹二 日本橋電停留東二筋北入
卸商 溝端商會
振替大阪六七三八七番
入用品名記載申込하면(見本及商報送呈함)

新與 合番椒粉
우동、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초가루
月美人印
大阪 與兵衛商店 製造本舖

各種製材 調材鋸類
木工機械 製材用品
(カタログ送呈)
大阪市西區北堀江三番町一六
細田商事合資會社

失職? 轉職? 二百餘名의運命

可及的으론轉職保障한다고

交換孃餞別探訪 二

광무(光武)년변부터 경성에전화가처음으로 가설된후로 삼십사변간 대정십일년 삼월 룡산(龍山)분국이 생기고 동십이년칠월에 광화문(光化門)분국이 생김에따아 본국(本局)이라는 국호(局號)를 부치지 십사변간 사람은 해마다 변할지언정 구준히 계속하여 내려오든 교환수에 의하든 교환은오는 십월일일부터 자동식 교환기계의 등장을따아 완전히 긔계화하야 조선전화발달사(朝鮮電話發達史)상중대한『포인트』를 그으려하고 잇다 지금까지도 경찰(警察)용의 경비(警備)전화는 자동전화이엿지마는일반용전화의 긔계화는 이번이 조선에서는효시(嚆矢)이다

×

자동교환에따아 현재의 이백여명 교환수는 어떠케될것인가 그들은 긔게에게 직업을 빼끼고 실직의 고배를 마실것인가 또는 어떠다른 직업으로 전업할것인가 이문제야말로 교환양자신들은 물론 일반이 먼저 주목하고 관심을 갓는 문제이다 삼사년식 비오는아츰 눈오는저녁 하루가티 그들의 직장인 진고개 마르터의 전화국을 차저 모히고 갈려 호터지든 교환양들은 과연 어데로 호터질것인가 그들은 전화국장의 결단코 실직자를 내게는 안켓다는 말을 굿게 밋고자동식교환준비기타에 평소에는 여덟시간식 근무하든 것을 이지음에는 열시간식이나 성실히 근무를 한다고한다

×

강두(江頭) 전화국장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준비에 총망하야 종업원문제는 생각해보지 도안한터로 어떠케 종업원을처치할 방침은 아직 서지안헛스나 개중시집을 가겟다든가 또는 자긔가 정사정으로 그만두겟다는이는 물론도 기다는 대부분 시외(市外)교환에 보충하거나 또는 광화문 룡산 두분국의 종업원으로 보충하고 그러고도 인원의 여잉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다른 관청 회사 은행등에 교섭하야 한사람도 직업을 일코 가두에 방황케는 안을예정이라고하니 그들의 직업전선에는 다소의 비람은 잇슬지라도 그다지 큰 선풍(旋風)은 일어나지 안흘듯도하다 그러나 일、이십명이면 몰으지마는 이백이십여명이나되는 그들을 그다지 손쉽게 그들이 면해동안 익어온 교환직업에서몰릴수잇슬는지 아모리 늘집더라도 다소의 의문표는 사러지지 안는다 여하튼가간으로 닥처오는 시일에 해결을맛기로하자

×

몃해동안 억개를 가즈러니하고 불야성(不夜城)의 본정밤거리를 거니든동무 십분동안의휘게시간에 휘게실에 모혀 시섬의 이야기를 주고밧구든동무 러논죽음긔의『짜스』소리에 마추어 코노래를부르든동무『데파트』의첨아끄테 걸린가을달을바라보며 세리한머리를서로위로하든동무그들은 이날몸을맛스라으로 비장한 해산을 할것이라한다

×

수화긔를 들면『넘바 푸리스』하든 교환양들의 응답하는 명랑한 그목소리는 본국관내에서는 영원히 사러지게되엿다 거미줄(蜘蛛)가티 이리얼키고 저리얼킨 전선을통하야 흘르고또 흘르든 그들의 고흔목소리는인저는 다시듯고십퍼도 차저길이 업게되엿다 룡산과광화문분국도 미구에 자동화하리라하니 이두곳마저 긔게화하면 참으로 조흔나 그르나『쓰쓰』『지지』하는 긔게소리에 만족하여야만할 날도 머지안흘듯하다 지금 전화국의 이전과함께 꼿다운교환수 그들은 어데로가시랴노 삼월(三越)뒤쪽에 새청사만흔 웅장히 섯건만흔 전에듯든 귀익은남방소리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발자최조차 차즐길이 업서진것이다

◇사진은 교환수의 휴게실

—(끗)—

稔穗와蔬菜를蹂躪한 近郊一帶의降雹

狂風、雷鳴、驟雨의混線襲擊

昨日近畿地方乖候

추석전후의 괴상한추위의 습래로 한동안『불안한가을』을예상시키드니 날세는 다행이 다시 조용한가을볏을 회복하야 성숙기에 드러선 백곡은 풍만한수확을 예상시켜서 등풍(登豐)의 구가(謳歌)소리가 바야흐로전원에무르녹으려하야 뭇사람의이마에서 근심스러운 주름살이펴젓다 그러든것이 이십륙일 대낫부터 갑작기 마른한울에 놀란우뢰소리와함끠 간헐적으로쏘다진 찬소낙비와때우박의세례로인하야 처처에 그피해가막심하다 그날정오경에 태풍(颱風)은 비록북해도(北海道)의 남방삼백『키로』의지점까지 머러젓스나 경인지방(京仁地方)에는 칠백오십삼밀리』의 부저기압(副低氣壓)이떠돌고 잇는까닭으로 대체로 경기일대에는 한결가티 나린모양이나 소락비와밋 이와함께나린우박인까닭에 전반적으로 나린것은 아니고 국부적으로 군데군데 나렷다고한다 그러나 바야흐로 조흔결실의첫관게에 드러선벼를 비롯한각색곡식과 속입파리가 필라말라한 가을배차는 우박과소낙비에 어더맛고 또갑작이 나린 기온의 침노로 완전한 결실과 성장에 각각 큰타격을바든 세음이다 위낙 결실기를 잡아서 농가에서 가장무서워하는 재앙은 서리와 우박인데 기다리든 등풍대신에 우박이 먼저차저와서펴지려든 농가의 수미는 또다시 기펴가려고한다 경남지방(京南地方)에는 오후여섯시 이십분부터 약십분간 강한우박이 폭주하야 벼와채소에 그피해가 심각하야 경기지방에서도아일대가 지금까지는 가장 심한것으로 예상되고잇다

京城府編入區域 來月廿日頃確定

總督府諮問案答申蒐集은完了

近近審議委員會組織

대경성의 건설을 기도하는 경성시가지 계획령을 적용할 신지역편입에대하야는 총독부에서 그동안 경성부와 또영등포(永登浦)읍외팔개면에 대하야 그의견을 자문한결과 이십륙일까지 그답신서가 전부모엿는데 모다 총독부에 제시한안에 이의가 업고 오직 경성부만 뚝섬(纛島)을 포함하려는 의견의첨부가잇섯슬뿐이다 총독부에서는 곳경성시가지위원회규정(京城市街地委員會規定)을작성하고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하고 부영(富永) 경기도지사와 이달(伊達)경성부윤등을 위원으로한 위원회를조직할터인데 느저도 십월이십일경에는 제일회 위원회를열고전긔가부읍면의 답신서를 심의하야 신편입구역을 최후적으로결정할터이다

安東縣稅關洋犬 五名이나咬傷

非人道的인密輸出者取締에

總督府側도對策講究

만주 안동세관에서는 안동、신의주(新義州)간의 밀수취체책으로 세파ー드 양견다수를 사육하야 가지고 밀수군을 교상(咬傷)케 하야 세상의 비난이 [illegible] 에는 밀수의 [illegible] 만주국세관리의 횡포는 더욱심하야 구월에드러서 발서 중순까지에 오명이나 밀수군을 교상케한일이 발생하야 그비인도적 [illegible] 법에 [illegible]하야 비구이매 대한선후책을 강구하고잇다 그러나만주국에서는 아즉합법적합리적추체책을 취하지는안코 의연히 양견사용을 게속할 의향으로 양견을식히어 아동부녀가튼 약자까지도 교상케하야 그비인도적행위는 실로 언어도단이라 한다

正音頒布記念 來三十日擧行

朝鮮語硏究主催로

부내 인사동(仁寺洞)에 잇는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에서는 오는삼십일 오후 다섯시부터 돈의동명월관본점(明月館本店)에서 훈민정음반포긔념식(訓民正音頒布記念式)을 거행하리라는데 종래로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해와 달수만 분명하고 그날짜가 정확치못하여 세간에서는 각각 그날짜를 달리해석하여나려오든중 이번 조선어연구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한날로통일 하기위하여 양력구월삼십일로 그날을 정해서 압흐로는 이날에 정례적으로 긔념식을 거행하기로 되것이라한다。

宛然올림픽縮圖 八種綜合競技大會

陸上、蹴球、野球、庭球等筆頭로

朝鮮體育會理事會는 豫定과가티 二十六日午後五時부터 同會館에서 會長尹致昊氏司會로 열리어 常務幹事朱興根氏의 前理事會會錄郞讀이잇슨後 닥쳐올 第十六回 全朝鮮綜合競技大會開催件에 對하야 長時間 討議한바잇섯든데 다음의 日程대로 武道、陸上競技、庭球、籠球、野球、蹴球、力技、씨름 等八種目을 一齊히 綜合 大會에 編入하야 盛大히 開催하기로 決議하엿스며 詳細는 追後發表하기로 되엿다

▲綜合大會日程

◇[illegible]、籠道=十月二十四日 ◇陸上、庭球、籠球=十月二十五日、廿六兩日 ◇野球=十月二十八日 ◇蹴球=十月二十九日、三十日、三十一日、十一月一日의四日間 ◇力技、씨름=十一月二、三兩日間

▲當日의出席理事氏名

尹致昊、俞億兼、朴勝彬、코스、(徽新)、劉基乾(延專)尹日善(世專)、徐相天(徽文)、趙陜河(普成)李丙三(東星)金明德(靑學)、金東翰、朴榮鎬、呂運弘、具滋玉、金龍九、李正相(高普)、朴忠根(培申)、李永善(中央)、李吉用(東亞)高鳳梧(朝鮮)

"朝體"主催가을써쓴豪華陣 八選手復權

昨秋에 열리엇든 綜合競技大會에 運動精神에 背反되엿다는理由로 朝鮮體育會로부터同會關係各種大會의 出場을 禁止당하엿든 左記八選手에 對하야 體育會에서는 今番 그處罰을解除하기로되여 今後完全히復權되는意味의 發表가잇섯다

李鍾九 蔡奎錫 金永燦 崔成孫 辛在麟 辛一根 李相再 洪燦永

嶺南遠征中의 養正럭비全勝

嶺南地方遠征中의 養正高普럭비軍은 지난二十二日 全大邱를 이기고 二十三日과 二十四日의 兩日間에는 馬山 釜山等地에轉戰하야 다음의戰績으로 全勝하고 二十六日에 歸京하엿다

養正 13 (8 5 … 0 0) 0 全馬山

養正 38 (27 11 … 0 5) 5 釜山中學

養正、崇中을擊破 道商、中東、信聖各勝

全朝鮮學生籠球第二日

中央基督敎靑年會 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은 二十六日午後二時부터鍾路靑年會館內코ー트에서 열린바 다음의戰績으로 道商이 松都高普를 中東이 普成을、養正이 崇實學校를 信聖이 京實을 各히勝捷하야 戰勢는 자못激烈化하고잇는데 今二十六日에는 中等部의 兩優勝候補中東과 養正이 準決勝戰에 對時케되여 이로부터 本格的舞臺로 드러가고잇다

中學部第二回戰

道商 44 (30 14 … 14 18) 32 松高

松都高普對京畿道商業戰은 同日午後二時五十五分부터 丁相允、安台慶兩氏審判으로 展開되여 前半戰松高의 猛擊에 道商軍은 [illegible] 하엿스나 後半戰에드러가 道商軍必死的攻擊으로 드듸어 松高를이겻다 (째임二十分間)

反	前	後	【松高】		【道商】	前	後	反
2	7	4	李世器	F	孫光善	4	8	1
1	7	4	禹鍾羲		李相協	8	14	1
0	4	2	李俊永	C	柳永一	0	0	0
					陳永得	1	1	1
0	0	2	李鍾韶	G	李敦永	0	0	2
0	0	0	金東蓍					
0	0	2	池順德		韓龍雲	1	7	2
3	18	14				14	30	7

中東 31 (15 16 … 13 2) 15 普成

中東對普成高普戰은 同日午後三時四十五分부터『빤허드』李惠澤兩氏審判으로 開戰된바 드듸어의 連絡은 敏速하야 連發 中東軍俊速의 [illegible] 아플놀지으것이 中東一六點普成軍은 겨우嚴英燮君의 끌한點이잇섯슬뿐으로 終了하엿고 後半戰에入하야 普成의 嚴君과 元鎬植君의活躍으로 十點과 洪龍灼君의三點 都合十三點을挽回할뿐으로結局三十一點對十五로中東軍大勝하엿다

反	前	後	【普成】		【中東】	前	後	反
1	0	6	元鎬植	F	李容馥	2	3	3
					田亨鎮	0	3	0
1	2	4	嚴英燮		李龍寬	8	0	0
3	0	0	金永福	C	孫仁據	4	0	0
3	0	0	安漢慶	G	李河濟	0	0	2
					金永福	0	0	0
2	0	0	洪龍灼		朴東漢	2	9	0
10	2	13				16	15	5

養正 40 (20 20 … 20 11) 31 崇實

遠來의 平壤崇實學校對養正高普의 對戰은 同日午後四時三十七分부터 靑年會館宗內 運動場에서 張檝、崔潤奧兩氏審判으로開始된바 이제임은 劈頭부터 緊張하야 一投入 一連絡마다 拍手로 呼應하는等 實로白熱戰그대로 進展되여前半戰이 끗날때까지 堅固한攻防戰으로二十對二十同點되엿다가 後半戰에는 兩軍더욱 緊張하야가다가 崇中軍十一點을 어덧슴에 反하야 養正軍은 二十點을 獲得하야 結局四十對三十一點으로 崇中軍敗하엿다

反	前	後	【崇中】		【養正】	前	後	反
0	1	5	金光善	F	金寧元	4	6	0
0	0	0	張元明					
0	7	2	吳壽奉		鄭慶燮	8	0	0
3	8	4	張元國	C	申宗淳	4	2	1
1	4	0	吳重烈	G	方元淳	2	9	2
					白南慶	0	3	0
3	0	0	吳吉文		韓世一	2	0	4
5	20	11				20	20	7

信聖 46 (26 20 … 8 12) 20 京實

宜川信聖學校對 京城實業專修學校戰은 同午後五時二十分부터金振秀 金化泳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遠來의 信聖軍 連絡巧妙히 四十六對 二十의 큰差로京實을이겻다 (째임三十分間)

反	前	後	【京實】		【信聖】	前	後	反
	0	0	全宇鎭	F	韓啓鼎	13	5	0
1	6	6	金東鎬		朴英一	6	10	1
	4	1	裵哲鎬	C	金湜運	0	6	2
	0	0	余逸濟	G	白英俊	0	2	0
					金東傑	0	0	0
3	2	1	朴聖基		張根益	1	3	3
5	12	8				20	26	6

待望！春園의長篇小說

三十日付夕刊五面부터連載

作者의말

作者 李光洙氏

이차돈(異次頓)은 신라사(新羅史)뿐아니라 전조선의 반만년력사를 통하야 가장 아름답게 살고 가장 아름답게 죽은 영웅입니다。신라의 문명의 기초를 혼자 다 세웟다고할만한 법흥왕시대(法興王時代)한창 국력이 성하고 문화가 자리잡히는 시대、이종(伊宗＝異斯夫)를 비롯하야 만흔 인물이 배출한 시대——그때에도 가장 대인물인 이종황종 (荒宗＝居柒夫) 과함께——아니 그보다 더욱 뛰어나고 빗나 영원히 그빗치 살아지지아니할 위인은 이차돈이엇습니다。십륙세에 벌서 전장에서 대공을 세우고 이십이세에 장차공주와 왕위까지 어들수잇는 부귀를 버리고 조정전체의 적이되어 아름다운 순교자(殉敎者)의 죽엄을 죽어씁니다 그의 피흐르는 머리를 치맛자락에 바다 금산(金山) 서쪽에 뭇고 그의 무덤 겻헤서 일생을보낸이가 누구냐 하면 당시전신라에 손흔난 월시주(月主)아기와 성주(星主)아기엿습니다。월시주아기는 우산국(于山國)을 처 합병한 무훈이 혁혁한 이종이손(伊宗伊飡)의 딸、성주아기는 우산국공주。

이차돈은 어찌하야 천하에 으뜸가는 영화와 대인까지도버렷나? 어찌하다가 이십이세의 꼿다운청춘에 형장의 이슬이되엇나、그러나 어찌하야 츄만세에 슬어지지안는 빗치되엇나、법흥왕(法興王)은 어찌하야 이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이차돈이나 월시주、성주는 비록 일천사백년전 사람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우리는 이 옛날의참된 젊은남녀의참된 생활 참된사랑 속에서 우리자신의 그림자를차저보고십습니다。이차돈의 짧으나 마다사하고 빗나는、그러치마는 눈물겨운 일생의 이야기、월시주、성주、이사부(異斯夫)거칠부(居柒夫)고구려안장왕(高句麗安藏王)——이러한 이들이 이차돈의 신기한 일생을 짜내는날(經)이 되고 씨(緯)가됩니다

짧으나 일만코 빗나면서도 눈물겨운 순교자、신라영웅

紹介의말

挿畵 金奎澤氏

본보석간제오면에 련재되든 춘원리광수(春園李光洙)씨의 장편소설『그녀자의일생』은 만천하독자의 열렬한 환영을 바다섯거니와 씨는 이제 그것을 끗마치고 새로운장편소설로 이차돈의사(異次頓의死)를 집필케되엿다。생애가 짧으나마 곡절이만코 빗나면서 눈물겨운 신라영웅의 죽엄을 중심하야서 씨의붓은 천여년전 우리조상들의 노픈긔개와구든 의지를 약여하게 하야주리라고 밋는다 씨의 소설에 대해서야 더구는 소개가 필요하랴? 구태어 소개를 드리어자 그 곳 뱀의발을 그리는 격이 아니랴。그러나 세상에서는 흔히 씨의붓이 봄꼿가티 아름다움을 알뿐이요 상록수와가티 고경함을 아지못하며 롬날과가티 날카로움을 알뿐이요 쇠뇌와가티 힘참을 아지못하며 공단ㅅ결가티 부드러움을 알뿐이요 장강대하와가티 흐르고 또흐르되 끗이업시 꾸준함을 아지못한다 그림으로써 씨의글은 오즉 청년남녀의 애틋한 한과원망으로써만 문의를 이루는것이 아니라 한겨더기피 들어가서는 오천년조선의 호흡과 맥박으로써 날을 삼스고 씨를 삼어 와다。씨를 안다고 자칭하는 자밧듯이 참된 씨의면목을 안것이아니라 이점에 대하야는 씨스스로도 저윽이 서그픈바가업지 안할수업다。그래서 씨는 붓을가다듬스고 심혈을 경도하야 자긔의 본면목을 일반의아페 쏘다노키로하얏스니 이곳 금번에 집필하는『이차돈의사』。

『이차돈의사』는 무정이후 씨최대의 걸작이요 력작이다。우리는『그녀자의일생』이 다함을 섭섭히녀길 겨를이 업시『이차돈의사』를 반가이 마지해야마뒤다。

더구나 이 소설의 삽화는 웅초김규택(熊超金奎澤)화백이 담당키로 되얏다。웅훈한중 세심하고 심각한중화려하야 조선삽화게의 최고봉을이루는 웅초화백의필치는 이소설로하야금 일층 찬란한광채를 더하게할것이다。

異次頓의死

春園 李光洙 作

熊超 金奎澤 畵

死刑被告八名等 廿六名拘留更新

控訴公判期는尙今도漠然한

間島共産黨事件

일시세간의 이목을 경동식힌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사건피고삼십일명가운데 최괴옥(崔貴玉)리성철(李聲澈)의 량명은 소화구년구월중에 사망을 하엿고 그밧게 세명은 공소취하를 하여 남어지 이십륙명만 방금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어잇는데 공소공판은 언제나 열리게될는지 아직도 미정이고 그는 십월이일로써 구류기간이 다하므로 다음과가티 사형 여덜명과 십오년 일명에 대하야 구류갱신을 하게되엇다

▲死刑 周現甲、金東弼、劉泰順、高河鯨、金應洙、許玩珍、廉昌潛、池蓮浩▲十五年 元容學

그리고 가튼사형가운데 김광묵(金光默)김금남(金今南) 량명은 금월 이십삼일에 발서 구류갱신이되엇다

綜合博物館設立 巨額寄附金遝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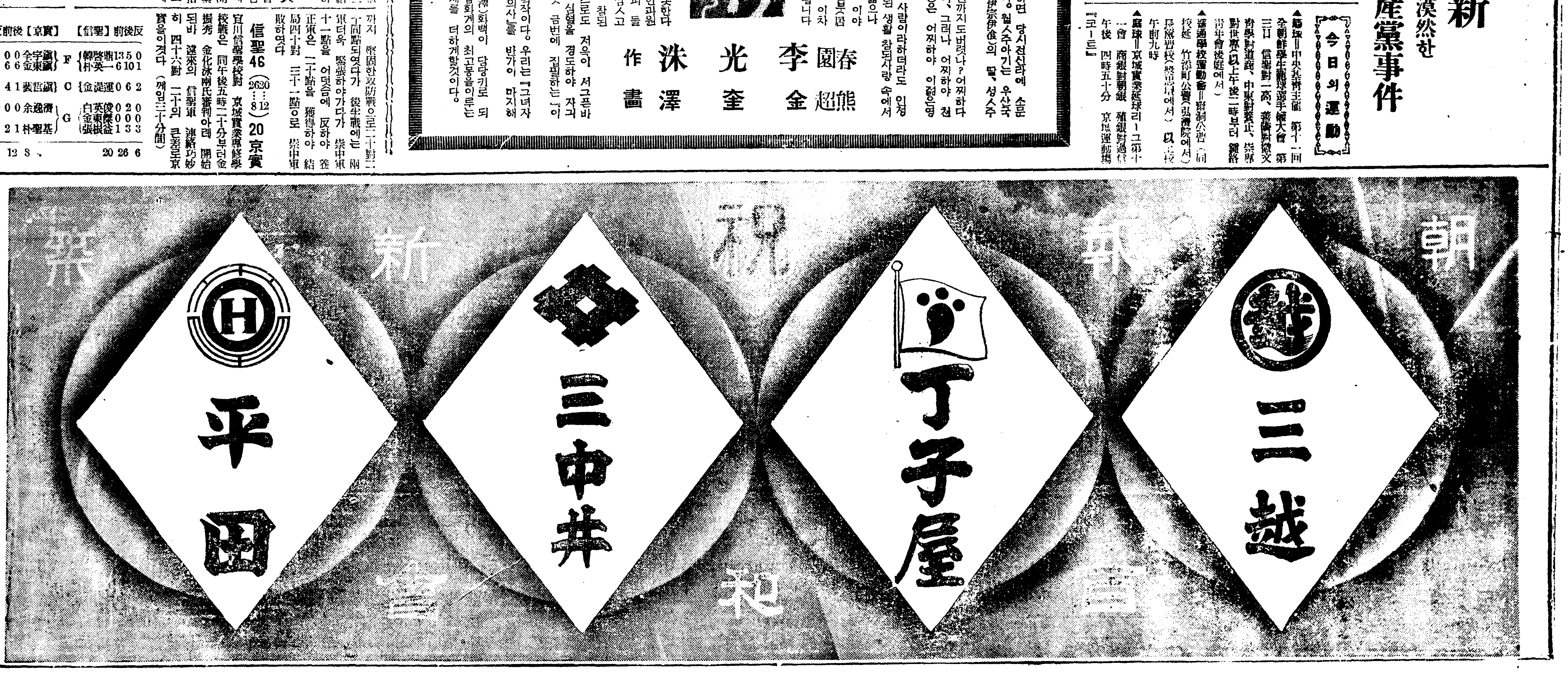
이백만원의 예산으로 총독부에서 설립계획중인 종합박물관의 긔부금 모집은 발서 팔십만원을 돌파하엿는데 조선인측의긔부는민영휘(閔泳徽)씨가 이만원 김년수(金年洙)씨가 일만원 박영철(朴榮喆)씨가 오천원을 제공하엿다한다 그리하야 지금형편대로 긔부가 모집되면 최초의예정액인 일백만원을 돌파할터이라한다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督靑主催 第十一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 第三日 信聖對一高、普成對徽文、培材對道商、中東對養正、崇專對世專(以上午後二時부터 鍾路靑年會後庭에서)

▲普通學校運動會=齋洞公普(同校庭) 竹添町公普(弘濟院에서) 以上校 長廣壯公普校(奬忠壇에서) 午前九時

▲庭球=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十一會 商銀對朝銀 殖銀對遞信 午後四時五十分 京城運動場『코ー트』



醫藥學界 最高權威者 選定藥劑 高價藥配劑公開

肺病 肋膜炎 肺尖加答兒 專門藥

藥劑는 **如何**한것이 **最良**하다할가

그것은 內務大臣을 會長으로하고、醫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 그品位를定한、日本藥局方收載의藥劑가 正確最良함으로、我醫療界의基準이되야잇는것이다。

그럼으로我社는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의內務省衛生試驗所의檢查封緘한優良最高貴藥劑를根幹으로하고、世界醫學界의權威者公認의藥劑를配劑하얏스며

더구나東洋에서二千年來、治療醫學上그効績을認定바든高貴한皇漢藥을併用配劑하야、發賣하엿던바、全治者들이게속的으로新聞紙上에發表하야肺病이不治症이아닌것을明白하게表示하는聲價를博得하게된바이다

別製治肺劑는 左와如한 二十二種의 綜合醫治効能을 具備한 處方으로서 許可劑公認配劑를茲에公開함

結核治療劑 五種配合

歐米의 醫療界는勿論、我國醫療界에서 結核治療劑로하고、政府指定의 最高權威者가 審議한後에 日本藥局方에서 收載。더욱內務省衛生試驗所가 檢查封緘한藥劑五種을 綜合配劑하엿다。

結核解熱劑 一키로瓦 二百三十圓 外一種配合

世界醫療界에서、結核解熱劑로서最高級의權威잇는 高價藥들가지고 配劑하엿다。其作用은 結核熱에拮抗하야頑

食慾促進劑 一키로瓦 二百六十圓 外一種配合

固한結核熱을 解消하야、發熱에서오는 種種症狀을 減退식힘

本劑도 亦歐米의醫療界가 擧皆實用하고 더욱 我國政府制定日本藥局方의 收載藥으로서、胃腸을刺戟하야、食慾을增進하고消化가 顯著히빨으며 結核性의消化不良又는 食慾不振에 奏効한藥劑로서 高貴한것도 配劑하엿다。

健胃整腸劑 四種配合

結核에因한 胃腸障害에 効果잇

消化劑 一키로瓦 四十七圓 外一種配合

日本藥局方收載藥健胃整腸劑 四種綜合配劑

本劑는 世界醫學界의 公認엔 優良한 消化劑로서 高貴한것도 配劑하엿다

滋養强壯劑 一키로瓦 五十二圓

肺結核並肋膜炎은 身體를消耗식히고 體力을低下케하며 더욱더 病勢를 惡化식힘으로 體力을强化케하고 또抵抗力의增加를圖謀하기爲하야 日本藥局方收載의 滋養强壯劑中優良한것과 高貴한것을 配劑하엿다

酵母劑 一키로瓦 五圓五十錢

鎭靜劑 一키로瓦 五十二圓

近者流行한 食慾昂進과 榮養이되는 헤ー텔劑中가장優秀한것을配劑하엿다

結核患者特有의神經興奮을鎭定하고、不眠과盜汗과를곳치는高價藥을配劑하엿다。

鎭咳祛痰劑 一키로瓦 七百四十圓 外二種配合

結核患者의가장고롱하는것은기침이다。鎭咳를식히는것은患部의動搖를막고、苦惱를除去하야、安眠케하고、食慾增進에必要不可缺한것으로本劑는最新의鎭咳祛痰劑로서實用되고잇는鎭咳祛痰劑로、優良하고도高貴藥인것을配劑하엿다

호루몬劑 一키로瓦 一千六百圓 一키로瓦 一千二百圓

本劑는東洋에서二千年來、治療醫學上그効驗을認定밧고、救急藥으로서萬病에使用되는 高貴藥이다 다른一種은 히마라山幽谷에棲息하는動物에서探集한 엇기어려운一種으로一動物千頭中、二十匁을밧게取할수업는高貴藥이다。호루몬劑로 前記二種의 高貴藥이配劑되얏다。

以上의配劑로自然機能을旺盛케하야여러가지症狀을輕快케하여준다

●本社의治肺劑와血液素의併用에依하야全快者를新聞에發表한것이 其의數千人에達한다。卽藥効를證據세운것으로무엇보다도全快者數에잇다。

●그多數한全快者發表에모다住所氏名을明確하게하고、全快後、健康하게된寫眞까지揭載한것은本社獨自的자랑이藥効와養生의結果임을反映한實際的論據이다(新聞廣告에서늘보는全快文은、住所氏名을明記안코、匿名과氏名만으로捏造한것가티도보인다。그런全快文이면 藥書一枚를自己가投函하야서그것을全快文으로取扱하야揭載하면누구나다되는것이다) 이病은다른病과달너서、病苦에頑强함이오래됨으로 自然町村內에까지 알려지고、또全快하야健康가되는것도 알게된다。

●町村에는 駐在所가잇고 事務所가잇슴으로 僞造가잇스면 대번에問題가일어난다。本社에發表한 全治者의 그告白文도眞實한 喜悅에넘처서同病者를救濟코자하는힘잇는 웨침이다。더구나 그全快는 硏究室에서되는 臨床보다나

●我國民은大槪健生思想幼稚로 不治症이다。죽을병이라고生覺하야서 스스로死地에빠지는者만타 로끼의全快와달너서사람의全快 本社의發表하는 多數의全快者를 보드라도不治症아인것이明白하다

●現今、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不許하니이런高貴藥配公開는 秋毫라도 虛僞가 안이다。

●肺病患者는 本劑로써 一日이라도빨이健康이回復되기를바란다

그러고 本社는患者의秘密을絕對로嚴守함

藥價

特製七種配劑治肺劑	八日分 十圓	十六日分(德用品) 十九圓	四十日分(特別奉仕) 四十五圓	豫後連服用
特別製十三種配劑治肺劑	八日分 十五圓	十六日分(德用品) 二十八圓	四十日分(特別奉仕) 六十五圓	重症連服用
피가되고살이되는作用이잇는 有田血液素	二十一日分 四圓	六十日分(超德用品) 十圓		

最近의全治者・全治者發表는藥効의確證

곳친분에게

차게찬것이원인으로감기에 걸여서고렬이 계속되야 대단기부이 납부고 아스피링가튼것을먹고 누어잇섯스나 암만해도열이 안내리고그우에 현저히 수척하여음으로 걱정이되야의사의 진찰을바럿더니 폐첨가다루라고말하엿습니다。친절한의사의 치료를바든것을 여러가지로치료를하엿스나 나의선생병이낫지안코 병은점점납버짐으로페단카지이되고 한숨마쉬게되얏습니다다그랫더니

친척된사람이잇서 그의말에 신문광고를보고 아리다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전문약이 매우잘듯는다고 가르키여줌으로 岩國町의有田도락구專賣所에가서 병세를말한즉주임의일광、공기、음식、섭생、정신요법등나의병에관한섭생의방법과 폐병은치료여하로곳낫는병이란것을 자세히말하여주엇습니다。

濱田やす

대단마 서음이든든하여저 그때부터는주

山口縣玖珂郡川下村今津開作一四八 全快者 濱田ヤス

勸을바더서 服藥全快 되기까지

肋膜炎와 肺尖加答兒

「꼭낫는다」 고밋고服藥攝生하라

꼭장마 시기에드든六月이엿습니다。그 이라고진단을 받든것은 두의사에게똑갓지 『폐첨가답아와록막염의병발증』 하게압흐고、점심때는 조금열까지낫스나、에통을줄보고、논밧헤 의사의진료를밧고 약을먹게까지 되얏스나 늘일이 밥붐으로 압

小川まさゑ

일하느라고무리를한것이 원인이 되야서、그럼케도무서운병을힘으 혼것도이저바리고일어나서 일을 하엿더니 ...

(一)二개월전부터 엇전지신체가무겁고、경숨과동음이가며여로이상...

임이말슴한대로안정、공기、일광음식등에 주의하야서 별제치폐제(別製治肺劑)와 혈액소(血液素)를 빼지안코먹엇더니、숨갑흔것이 제일먼저업서지고、열이내리고、밥맛도나고、점점살이쩌서 드듸여 의사로부터 전쾌된건강체라는 진단을바덧습니다。요새도 체중을달아보왓더니 병중보담三貫넘어부럿다고함으로、가을의밥운추수기가되야도밥서거정업다고깁버하고잇섯습니다。

山口縣玖珂郡川下村今津開作一四八 全快者 濱田ヤス

더욱병세가더하야저 신문과잡지의광고에나오는 수만혼약을합부로먹어보왓스나 마음대로낫지안어서 곤난하얏슬때 어느아츰신문에서 아리다도락구(有田ドラッグ)라약광고에주의하게되야 그에게재된 만혼전쾌자와가티 나에게도깁븐날이올것을생각하면서、大垣市郭町有田도락구專賣所에가서 주임에게 여러가지로섭생법을듯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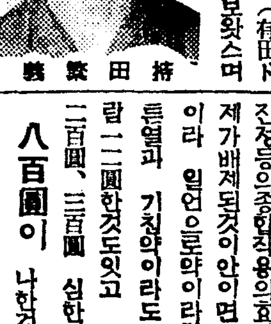
이날부터조금만한무리도된것은절대로하지안코조용하게 마음과 몸을가지면서、엇더케괴로운때라도『꼭낫는다』고하는 희망을버리지안코가르킨대로섭생법을직히며별제치메제(別製治肺劑)와혈액소(血液素)를련복하엿습니다。탕약과섭생과마음가진것이일지도 약서병을떠여는지가슴압흔것과열이내리고혈색도점차로회복되야서 가을바람부러올때는아조원기가나서생각대로깁븐전쾌의날이차저왓습니다

大垣市入方町三十五 全快者 小川まさゑ

結核病의 治療藥은 自然機能을旺盛케하고 綜合効果가잇는것을

황군의입원으로 입영하야 二개年의 의무를무사로써 보병第二十一련대에 변하기당으로몸의기룡이심이납버 지더니드듸여의사로부터건섭를마연에결엿다는선고를바덧습니다。빨이의사에 게치료를바덧

스나 하로라도빨이고치고십다는마음으로 아리다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 신문광고를 보왓스며 가들곳에사는 玉木氏의전쾌담을 듯고이참다운위대한힘을가진약을 구하겟다고 平田町아리다도락구 有田ドラッグ專賣所를 차저가서 주임으로부터 일광、공기、음식 정신등의양생법에대하야 자상한 설명을듯고 특히 자녀기능을 왕성히 하며 결핵균에 저항하는作用잇는약과



持田繁義

열、기침、담、도한、강심、신경진정등의종합작용의효과를가진약제가배제되것이안이면 안될뿐안이라 일언으로약이라할지라도가튼열과 기침약이라도 一키로그람一二圓한것도잇고 一키로그람二百圓、三百圓 심한것은 八百圓이 나한것도 잇슴으로、有田音松鑑製劑는 신문지상에공개하여잇는대로、그가운대가장고가인八百圓짜리 기침약을배제하야、기타세상에가장조타고밥한수만혼고가약을 배제하야잇스니 섭생을꼭지키기만하면 꼭낫는다고열심이말함으로 有田音松鑑製인 별제치폐제(別製治肺劑)와아리다혈액소(有田血液素)를사오고 친절을정결케하며공기잘들어오게하고거처하는방을밝게하고 적당이열어노케하며、심신의안정을도모하야 병인의신경을자극할만한일에는 근처도병인까지라도 아무조록맛내지안토록하야 일생으로섭생을하엿습니다。

약과음식 은 병인의입과입으로 이것에도깁흔주의를 하고 채식을 주로하며 고기도적당히 먹으면서 일심으로 약을먹고섭생에 전심하엿더니 효험이초기의목적을 달하야 전쾌되엿습니다。그후지금까지 한번도재발되지안코 행복스런생활을 하게된것은 이것이 전혀有田音松氏鑑製와 섭생의 은혜이라고깁히감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島根縣簸川郡出東村三ツ井一二八 全快者 持田繁義

백그람먹으면 사백그람피가된다

有田혈액소 一名一혈청 一가숨 一투사

몸이쇠약한사람 허약한사람이보통자양물로 제일만히먹는것이 우유、닭고기、닭알、곰국등이다 이따위는물론자양물이지만그것이어 면것이나 다 위장의소화작용을 지나지아니하면자양이되지 못하는것이다。그런데 허약한자나허약한자의위장은소화작용이약해서、이러한자양물을먹으면 반대로위장을해하는결과가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도 입원환자에게대해서、류동성의자양물을먹이거나、혹은식후에소화약을먹이는것이다。그러나이것도 자양요법으로는、아직완전하다고는할수업스므로 본사는 이것을고심연구하야 有田血液素(아리다혈액소)를창제한것이다 이것의특색은 아모리위장이약한사람이라도、위장의소화작용을바지안코 먹으면 곳위속에서녹아서 그것이피가되어、전신의 자양이되는것이다。그런 (一)얼골이핼숙하신분 (二)체중이증가하는것 (三)혈액이증가하는고로서정력을더하는것

(四)병중이잇는분으로몸에 온기가더만하지는것 그외에 병후산후의일반쇠약자、폐병、늑막염、심장병들의빈혈한자에게는업지못할보혈자양의혈액소이다。또이有田血液素(아리다혈액소)는보혈제로유효한주성분 Haemoglobin이얼마나만히들어잇는가하는데대하야는 내무성위생시험소분석표를보시우。

報告 大阪市南區末吉橋通三丁目五番地 依賴者 有田音松 第一四九號 一、オーソール(ヘモグロビン)定量 一種 右ノ名稱ヲ附シ當所ニ提出シタル品ハ暗赤色ノ乾燥セル粉末ナリ之ガ分析ヲ遂グルニ本品百分中ニ檢出セルヘモグロビン(ヘモグロビン)ノ含量略左ノ如シ ヘモグロビン(酸化ヘモグロビントシテ) 八五・五 大正二年四月二十九日 內務省大阪衛生試驗所 所長衛生試驗所技師 平山松治 主任衛生試驗所技師 森茂

가는현저한효력이나는것이다。시기바라며오도 는자가 잇사오니 有田音松鑑製라는문자에주의하십시오。

現代進呈

必治療養書『新生』은 患者救濟를爲하야 本社結核研究所의 醫學博士數名이 責任을지고 記述한 必治療養書인바 希望하시는 분에게 無料進呈하오니 葉書로 申込하시라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五六三 振替京城一三三一五七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全快에의要訣●藥과養生은車의兩輪●鳥의雙翼●藥의選定에賢明하라●自然을멀니하면죽고●自然을親하면全快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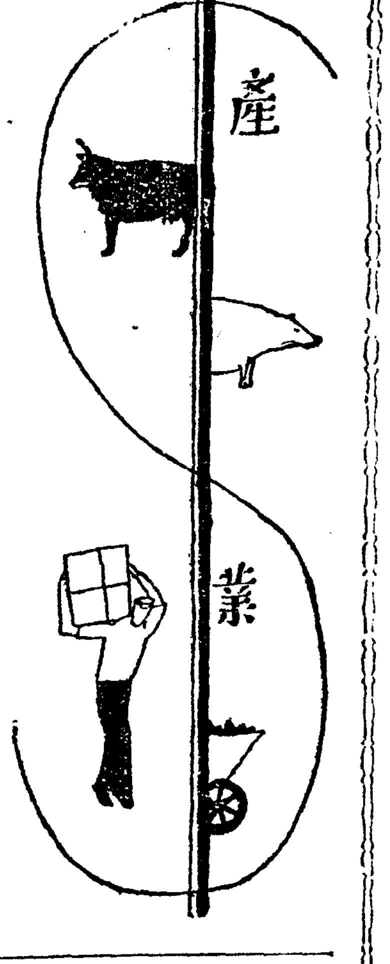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朝鮮)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竜山練兵町 有田도락구
平壤	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	幸町一 有田도락구
群山	駅前通 有田도락구
全州	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	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	栄町二 有田도락구
大邱	弓町 有田도락구
馬山	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	港 有田도락구
浦項	本町 有田도락구
裡里	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	漢頭里 有田도락구
海州	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	桜町 有田도락구
元山	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	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	生駒町 有田도락구

本舖 大阪內本町 責任製劑者 有田音松

責任製劑이므로一般藥店에販賣를不許함 上記의有田ドラッグ專賣所에서사십시오

有田音松社會事業 無料宿泊館 (利用은照會하십시오)



蠶業篇 (八)

本業으로는不適 副業으로만"有利"

農村의窮乏을救함에別無効果

貧農은그도못한다

끗으로 養蠶業과 農家經濟에 關한것을 若干 이야기하고 本文을 끗막으려한다、

總督府當局으로도 養蠶을 奬勵함에 그目標는 日本生絲輸出貿易의 增進이라는 큰點에 置重하는것도 事實이지만 農家를 爲하여서는 春窮期에 빠진 農家에 換金을 目標로하는 唯一한 生產業으로 奬勵하고잇다 그러함으로써 『農村振興』의 一助로삼으려는것인데 이것은 極히 平凡한 事實 갓기도하나 그內容에잇서서는 農家經濟 自體로보나 또는 現經濟機構의 發展過程으로보나 非常치안흔것임을注意하여 볼바이다 即自然經濟의 殘滓를 버서나지못하는 農村經濟가 今日高度로 發達된 貨幣經濟와의 對立에서 恒常壓迫을 밧고잇는것이 現下農村의 一般的苦憫이다 廉價의 工業生產商品의 攻勢와 한가지로 農村施設이니 其他 稅納等 諸負로 金錢支出의 年年 增大는 모두가 支配的인 都市의 貨幣經濟에로 奉仕、또 隸屬을 意味하는것이나 農產物의 一般的 價格低下는 結局 農村負債의 過重을 招來케할뿐이다 그러므로 農家는 무엇에 依하여 活路를 開拓할수잇슬까하는 質問은 무엇에 依하여 換金策이 可能有利한가하는 一點에 歸着하는것이다。

◇

養蠶價가 亦是 都市工業資本에 支配되고 잇는以上 農家自體로서 換金策의 獨特한 役割을 다한다고 볼수업는것이지만은、現在 副業으로서는 比較的나흔것이라고 안할수업다。그래서 總督府 當局으로서도 換金策으로 有利타는데 目標를 두어 相當한 效果를 나타내이게 한다。그 가장 適切한例로는 春蠶出繭期인 六月中旬에서、七月初旬頃은 바로 戶稅의 納期이다 그래서 一時는 共販市場에 稅務吏가 臨場하여 强力的으로 徵稅한 일도 잇섯다 그 方式으로는 共販市場에서 바든 傳票를 한번 稅務吏가 點檢한後에야 繭代金을 支拂케 하엿다 即 共販制의 實施는 徵稅의 方法으로까지 利用되여 人民의 무서운 反對를 맛나 結局은 中止하엿다 이것은 極端의 例이지만은 官廳으로서도 養蠶의 豐凶과 時勢의 高低는 納稅成績에 크게影響하야 地方 行政에 支障이 잇는모양이다。이에 一般 金錢支出에 倚存度로 窮地에 빠진 農家로서는 收入의 多少와 採算의 與否를 莫論하고 現金의길을 열기 爲한 生產으로 養蠶業을 버릴수업시된것이 事實이다

◇

그러면 養蠶業은 經營上 農家經濟에 有利한 產業이냐、하는것도 생각해볼 必要가잇다。그러나 이것은 엇게 論破될問題가 아니다 慶南道의 蠶繭生產費調查를 보면 繭市勢가 今年보다도 못한 昨年에도 採算上 利益을 볼것으로 되여잇다 여기에 數字를 記載할 煩雜을 略하거니와、그調查는 單純히 繭代、蠶種代等에 勞賃을 加算한것으로 農家의 生計全體에對한 基本數字를 全혀 念頭에 둔것이 아님으로、그 調査만으로는、簡單히『有利한蠶業』이라는 結論을 내리기는 힘든다、그러나 우에도 말한바가티 農家金錢收入을 目標로 하는點으로보면 有利하는것보다는 버릴수업는 副業임은 틀림업다 그러나 그것도 繭價의 如何에 달리는것임으로 一體로副業으로는 언제나 有利하다고는말할수업스나 專門이아닌副業으로는 比較的 有利함은 事實이다 當局의 調査와 그奬勵計劃에 依한다면 一戶當 蠶種紙一枚를標準으로하면 春蠶飼育三十日間에延人員十人가량이면 農村家庭으로서는 遊休勞力을 利用하여 普通경지하다 그러면 六貫五百匁가량의 繭收穫을 어들수잇서 每貫 一圓五十錢으로하면 十五六圓의 收入이된다 小農으로는 春窮期에 큰 도음이 되것이다 그러나 變動無常한 繭市勢로보면 蠶業으로는 危險하다는것은 總督府當局으로서도 警戒하는터이다

◇

記者는 以上의 計算에依하여 春窮期의 十五、六圓 收入이라면 小農으로서는 한도음이 되리라고 하기는햇스나 그實은이것도 卓上의空論에 不過한 現實農村의 窮狀을잘알기 收入結果만을 가지고 말함을 自認치안흘수업다、農業統計를 求하는中에 그調査數에依한 養蠶家戶數를알어보려고 애쓰는中에 겨우 開州에서 그數字를 어덧다 그것에 依하면 養蠶戶數 一萬六千六百七十五戶에 播種枚數 一萬六千九百九十五枚(今年春蠶)로 戶別枚數로하면

一枚未滿	九、一五九戶
二枚未滿	五、三三五
五枚未滿	二、〇九九
十枚未滿	八二

인데 一枚未滿을 每戶當平均으로보면 半枚强에 不過한다、그러고 또 養蠶을 할수잇는 農家는 純小作農家에는 거이업고 自作兼小作農以上에 가서야 겨우 그나마 副業으로라도 飼育하고잇는것이 農家의 實情이라고한다 이런것으로보면 農家의 窮乏이 어느程度에 미치는가를 짐작할수가잇고 딸아서 養蠶의 有利라는것도 農家經濟全體를爲하여서는 何等의 效果를 가저오지 못하고 一部一時의도움(?)을 보이는데 不過함을 알것이다 (끗)

特派員 洪鍾仁

◇寫眞은 共販場에 山積한繭

產業의本陣을차저서

江陵의名產柿 今年은大凶

例年의一割收穫도可望업서 農家의悲嘆이藉甚

【江陵】江陵柿는 年產三十萬圓으로 그品質이 良好하야 朝鮮內는勿論 日本內地等으로 移出이盛行되어 事實上 名產化하야 當局에서도 그品質의 改善과商品的價値向上에 努力을 傾注하고잇서 가난한 農村經濟에 裨益하는바가만타한다 然中 今年은 氣候關係와 合木의殆半이古木이關係로인지 凶年이드러 例年의 一割도 收穫을 못할것으로 豫想되어 農家의悲嘆은勿論이收入이 激減으로 所謂〃柿景氣〃도 所望이업슴으로 一般商界도 따라서 取引閑散을 豫想한다고한다

平安百貨店을 和信에서買受

【平壤】平壤府內 西門通에 偉觀으로 일우웟든 平安百貨店은 社長金應銖氏의 不斷의 努力으로 相當한 業績을 나타내이엇섯스나 事情에 依하여 和信百貨店에 全般經營權을 讓渡키로 되여 二十三日까지로 門을닷치고말엇다 이리하여 平安百貨店은 和信으로變하여 十餘日後에 다른 面目으로開店할터이라한다

滿洲山林伐採 取締嚴重化

入山에警務課의許可가必要

【奉天】在來滿洲國內의 各伐木業者들이 組織하고잇던 警備의團體은 今番滿洲 林政改革으로因하야 自然解消하기로되고 今後森林警備는 警備隊가 當하기로되엿다는바 今後로는 森林採伐에 揮下를 受한者라도 當局의入山許可가업시는 入山採伐은 不可能하며 一旦入山許可가 잇서도 區域外에 入하는것은 絶對로 禁止되여 區域外의 것은 前年採伐한材料라도 一切搬出을 許치안키로되엿다하며 伐採地의 勞働者의取締도 從來와갓치 區處는안코나 자못嚴重을極하야 使用人은全部 所管警務課의 許可를 엇기로 되여잇고 地方民의使用에도 入山證明을 所持하지안흐면 警察隊는 絶對로이를 『匪賊』으로 看做하야 處分에付하려는 方針을 樹立하엿다한다

咸南水產共進會 來月初旬에開催

【元山】咸南道農會에서는 來月四、五、六의三日間 元山府家畜市場에서 第一回咸南畜產共進會를 開催키로하얏다는데 이共進會를 通하야 畜產咸南의 眞如한 面貌를나타내리는바 咸南各郡府에서 出品할 點數는 다음과갓다는데 더욱이 開催地인元山에서는 全朝鮮脚戱大會를 共進會期中에 열기로되엿스며도 한 水產品研究會및 同加工品即賣를 하기로되엿고 元山府畜產係에서는 第一回移出牛縣貿大市를 普通畜牛大市에 兼하야 열기로되여 同畜產共進會는 空前의 大盛況을 일우리라고한다

◇出品數

牛＝七〇點 豚＝三〇點 鷄＝四〇點(八十羽) 緬羊＝一〇頭 加工品＝一五〇點

鳥致院栗好評 移出逐年增加

鳥致院附近에서 生產되는 栗은 逐年增加되고잇는바 日本內地市場에잇서서도 鳥致院栗은 好評을 博하야오는터로 今年은 인제부터 總出荷期이므로 鳥致院은 勿論 公州 滿洲 天安 全義의 等地에서 多數移出을 보고잇다 이附近을 總稱한 年產額은 五千餘石가량으로 特產物로서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다 移出地는 九州 下關 東京 東海道沿線各地에 直하야 相當히 需要되고잇는터로 現在 一石價 十五圓 乃至 二十圓이라 한다

遼陽棉花出廻 百斤에五十圓程度

【奉天】奉天管內의 最良產棉區域인 遼陽縣에서는 벌서 今年度新棉花가 市場에 出品되엿다는데 價格은 百斤에五十圓程度로서 昨年에比하면 三、四圓의 高價라한다

▲夏秋繭取引市勢

月日	場所		種類	最高(圓)	最低(圓)	平均(圓)	掛目(掛)	數量(貫)
九、二二	慶南	居昌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禮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居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海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瑞興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金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文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二	同	咸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密陽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晋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潭陽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咸平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〇	咸北	明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鏡城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明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朱乙)	鏡城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鏡城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三	忠南	禮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南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居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海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金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瑞興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三	江原	金化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南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密陽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尙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咸平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潭陽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四	忠南	禮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海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金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金化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文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光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六〇八	慶北尙州郡安定面	九月五日	安珠鎬任意脫退
八五九一	忠南扶餘郡草村面石城面	同 六日	金春三任意脫退
九六〇八	慶北尙州郡安定面	同 五日	金在圭任意脫退
同	同	同	蔡斗元任意脫退

全南海苔養殖 一千萬圓計畫樹立

干潟地를養殖場으로

朝鮮海苔의 原產地인 全南道에서는 海苔養殖一千萬圓計畫을樹立하고 現在의 干潟地十五萬町步의 一割 即一萬五千町步를養殖場으로 利用하기로 되엇는데 이것이 利用開發되는때는 一町步 平均年產額 二十七圓으로보아도 년년히 一千萬圓의 收獲은 잇스리라고 보인다

獨逸經濟視察團 十月에來訪決定

拓務省으로부터 總督府에 通한 通牒에 依하면 獨逸政府에서는 東洋貿易의 振興促進 特히 日獨貿易의 維持增進、對滿貿易의 調節、中國本土에의 經濟進出을 圖키爲하야 東洋經濟使節團을 派遣하기로 決定하고 一行은 來十月五日 伯林發加奈陀經由 엠프레스오브에이시아號로 十月三十一日 橫濱着 約二週間 滯在하야 日在內地主要貿易業者와 懇談하고 朝鮮經由新興滿洲의 經濟狀況을 視察하고 北京 上海方面을 經하야 歸國할 豫定이다

落葉과下草의 採取를禁止

尙州郡內各面에實施

【尙州】慶北尙州郡에서는 郡內各面各山野의 落葉과下草採取를 禁止하야 山野保護와 土砂防止及 洪水防止策으로 五個年計畫으로 아래와가튼 區域을 定하얏다고한다

▲禁止區域

尙州邑 開雲里 沙伐面 德潭里 中東面 梧上里 洛東面 城洞里 洛東里 靑里面 馬孔里、功城面 峯里 以花里 外南面 新村里 內西面 南長里、牟東面 梨洞里 牟西面 道安里 化東面 以所里 化西面、上縣里 化北面 立石里 外西面 鳳岡里 銀尺面 南谷里、恭儉面 松谷里 屛岩里 咸昌面 校村里 利安面 文昌里

遠洋漁業看視船 新建造計畫

廿日總督府서指名入札

總督府에서는 卅萬圓을投하야 今年度부터 二個年計畫으로 着手된 總督府의 二百九十噸 六百馬力가데이절汽船 遠洋漁業保護監視船建造入札은 卅日 總督府會議室에서 長崎及下關彥島三菱 神戶三菱 神戶川崎 赤穗播磨의 造船所에 指名入札을 식히기로된바 同船은 新潟三사이클라이저機械를 据付한 最新式精功取締船이라한다

北朝鮮鐵路의 貨物運賃率改正

遠距離遞減制로統一

北朝鮮鐵路 管理局의 貨物運賃制度 統制에 伴한 貨率 改正에 關한 總局滿鐵間의 協議의 結果 左와如히 決定을 보앗다한다 總局貨率의改正과 社線 國線의貨物等級統制에對하야 大體雙方의意見이 一致되야 總局側은 改正貨率 實施의技術的 方法決定을 보고 滿鐵 重役會에 上程하야 關東軍 交通監督部의 認可를 어더 實施 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鐵路總局의 貨率 統制는 現行 遠距離遞減制(一粁에 對하야 三錢五厘)及 京圖線의距離比例制(一粁에對하야 三錢)其他鐵路局의 距離比例制(一粁에 對하야 三錢五厘)等 三項을 全部遠距離遞減制로 改正하려는것으로 貨物等級 六級에잇서 一般的으로 貨物이가장만흔 三等級에對하야 一車키로噸에 一錢三厘乃至 三錢五厘의 貨率을制定하려는것이다

滿洲叺生產統制

生產奬勵、品質向上 朝鮮人民會가中心이되어

從來 滿洲의 叺生產은 相當한 數에 達하고 잇스나 그需要의 半分에도 밋지못하는 狀態이며 部分的으로 檢查制度도 實施되고 잇스나 그統一을 보지못하야 微微한狀態에 잇는터인데 今般在滿朝鮮人民會聯合會가 主體가 되야 當地精米業者組合及金融會와 連絡을 取하야 奉天 開原 撫順 鐵嶺 營口를一圓으로한 叺生產統制를 計劃하고잇다는바 生產及 그經費는 初年度六萬枚四萬圓 二年度 七萬枚 五萬圓 三年度 八萬枚 六萬圓으로 生產의 奬勵와檢查制의 實施에 依한 品質向上을 圖하리라한다

薄荷栽培에曙光

作況이良好하고價格도暴騰하야

總收近五萬圓에到達

總督府農林局에서는 特用田作物薄荷奬勵의 結果 現在 栽培總面積五百町步 이收穫高四萬九千圓에 達하는바 今年의 作況은 자못 良好할뿐만아니라 價格도一斤當 七圓五十錢 即 前年보다 一圓五十錢가량의 暴騰을 示하야 特히 全南과 如한道는 段當收入이 他作物十圓에 比하야 四十圓이라는 高率한 收入이잇슴으로 道에서도 檢査規定을 만들어 品位檢查를 實施하야 品質의 向上을 圖하는同時에 郡農會에서 共販을 行하는等 極力 薄荷의 處分 增產에 努力하고 잇는바 只今까지에 이미 共販한것이 一萬五千圓에 達한다

慶南棉收豫想

比昨年二割五分九厘의大增

【釜山】慶尙南道 今年度棉作收穫豫想은 二十五日 道產業課發表에 依하면 總作付面積 二七五八六町步에 三四、五三五、九二九斤 이라는데 昨年度實收穫二七、四三七、四八三斤에 比하면 二割五分九厘의 大增收이라한다 其增收의 原因은 作付面積이 昨年보다 一七〇町步增加한 關係도 잇지마는 天候가 順調롭든 關係라한다

一、各郡別收穫豫想은 左와如하다

晋州	四、四一五、一四四斤
宜寧	一、五三〇、三七一
咸安	二、四二六、二七一
昌寧	三、九一三、〇〇〇
密陽	二、八六八、〇七二
梁山	六六〇、〇〇〇
蔚山	一、五七四、〇六六
東萊	一八五、七七四
金海	一、一九三、六七五
昌原	一、五七一、〇三六
統營	一、九五二、四六五
固城	一、七七八、七九七
泗川	三、〇四四、七九一
河東	一、五一四、七五九
南海	一、一〇六、五四七
山淸	一、二〇〇、七〇〇
咸陽	九四六、三二五
居昌	四一五、〇五九
陝川	一、八三九、四〇五
總計	三四、五三五、九二九

明年도農、林產物 病虫害驅除奬勵

補助金一萬三千七十圓計上

總督府農林局에서는 農林產物의病虫害徹底驅除奬勵策으로 今年度同樣 一萬三千七十圓의 補助費를 明年度豫算에 計上하야 總督府第一回의 査定을 通過하얏슴으로 明年도 全朝鮮的으로驅除의徹底를 期하기로 되어잇다

永興金肥需要 一萬圓突破

比昨年一割以上增加

【永興】郡農會調査에 依하면 今年度 永興郡內에서 消費된 金肥는 大豆粕 鰊粕 硫安 硫燐安 二〇度石灰 一五過石、硫酸加里 一九、五％過石等으로郡農會 金融組合 個人販賣 合한 購入石數는 六千七百五十叺인데 代金은 一萬百圓의 巨額에 達하는바 昨年度에 比하면 一割以上이 增加하엿다하며 郡內金肥需要는 年年히 增加되는現狀이라한다

尙海藥酒會社新築

【尙州】慶北尙州郡에서는 尙州聞慶、醴泉等三郡에 散在한從前의 藥酒製造業者를 網羅하야 公稱資本金十二萬圓으로 藥酒製造를 事業으로한 朝鮮人經營의大會社를 設立하엿거니와 本社가 豫算 一萬二千餘圓을 投하야 工場及事務所를 新築하든바 竣工이되야 開業을 始作하엿는바 從前보다 成績이 매우 良好하야 道內는勿論、道外까지 移出이만히되다하며 去二十四日에는 在尙各新聞支局長及官民有志二百餘名을 招待하야 新築落成及開業披露宴을 盛大히 擧行하엿다한다

國鐵朝鮮米發送

九月二十五日

	今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高地帶開發에 總督도積極的

定例局長會議는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第三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劈頭宇垣總督으로부터 北朝鮮視察의 感想으로 뒤낫은 冷害發生은 現地를視察하고 더욱 對策急務를 痛感하얏는데 이와 併行하야 農民自體도 研究하야 스서로 開拓할 方途가잇지안흘가 長津江의 流域에서 土地를 採하야 一은七割의 減收、一은 增收라는 土地가잇섯는데 粗放農法에 原因한것으로 耕作方法의 改善에依하야 如斯한 點은 解決의 途가 잇슬것이다 槪觀하면 高地帶는 從來 平地帶에 比하야 改… 販指導等의 恩澤을 입지못하얏다고 생각된다 今後는 特히 山間地帶開發에 用意하려한다고 高地帶開發에 積極的 [illegible] 同意하는바이섯다

新浦明卵組合서 直轄運送店設置

組合員의製品一切를取扱

【新浦】明卵製造業者의 生產品共同販賣와 消費品 共同購入을 目的으로 全新浦 明卵商百餘名을 網羅하야 組織한 咸南新浦明太子移輸出組合에서는 運送店手數料搾取防止와 同組合員의 利益擁護를 爲하야 今月初旬부터 直轄運送店(마루이찌)를 同組合內에두고 一般組合員의 重要生產品인 明太子 及 其他製品一切를 同店에서 一手取扱할터이라는바 이로因하야 他運送店에 밋치는 影響이 實로 莫大할터로 今後 此等店의 競爭이 注目處라한다

漆谷地方의 棉大豐作豫想

比前年四割增收?

【倭館】慶北漆谷地方은 今年의 雨量과 氣候가 比較的 適宜한 關係로 郡內棉作은 大豐作豫想이라는데 漆谷郡農會發表에 依하면 例年보다 四割이나 增收되리라는바 來卄八日 共同販賣의 每斤賣買價格은 十七錢五厘可量이라하며 例年은 六百餘萬斤인데 今年收穫高八百萬斤이나 될 豫想이라하야 例年에 比하야 三百六十萬斤의 增收를 보게되어 農家經濟는 多少潤澤하야질것이라한다

私鐵買收法律案

明年도實現困難

總督府에서는 現下의 低金、利時代임으로 私鐵買收를 促進補助金을 低減케하라고 먼저 從來의 私鐵買收方法을 改善하야 被買處를 一括한 一法律案을 作成하여가지고 議會에提出하야 右法律案에 共하야豫算이 許하는範圍에서 每年 어느程度까지買收를 進行케할 意向으로 案을 作成中이다 그러나 明年度豫算折衝에잇서서 此點이 實現키 어려울모양으로 아마 十二年부터實現될 可能이잇다는觀測이 잇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一五八	金銀タングステン鑛	咸南德源郡豐下面	九月十日	平壤府平川里 大村勇藏
一一一五九	硫化鐵鑛	江原鐵原郡馬場面	同	咸興郡興南邑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一一一六〇	金銀鑛	忠南靑陽郡化城面	同十一日	保寧郡靑所面 李相憲
一一一六一	同	平北朔州郡九曲面	同	京城府黃金町 三成鑛業株式會社
一一一六二	同	慶南陝川郡冶爐面 慶北高靈郡雙林面	同	大邱府南山町 金璲憲

◇鑛業權移動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八九九〇	忠南公州郡鷄龍面 木洞面、州外面	九月七日	論山郡豆磨面 李壽東
一一二〇六	京畿江華郡佛恩面 良道面	同 九日	江華郡府內面 代表者 洪在淵 / 大田郡炭洞面 代表者 金亨燮
一一六二五	忠北永同郡楊江面	同	星州郡星州面 代表者 鄭玉駿 / 靑松郡縣西面 金達龍
八五九一	忠南扶餘郡石城面 草村面	同	京城府峴底洞 代表者 蔡基斗 / 仁川府海岸町 神宮朴
九一五四	同天安郡稷山面成歡面	同 十日	京城府古市町 代表者 塚本恭士 / 同敎義洞 文章伯
七四八九	黃海遂安郡泉谷面	同	平壤府鹽店里 代表者 金寧起 / 大邱府南旭町 蔭澤周藏
八三一六	同	同	共同鑛業權者洪順文의持分을大邱府南旭町蔭澤周藏에移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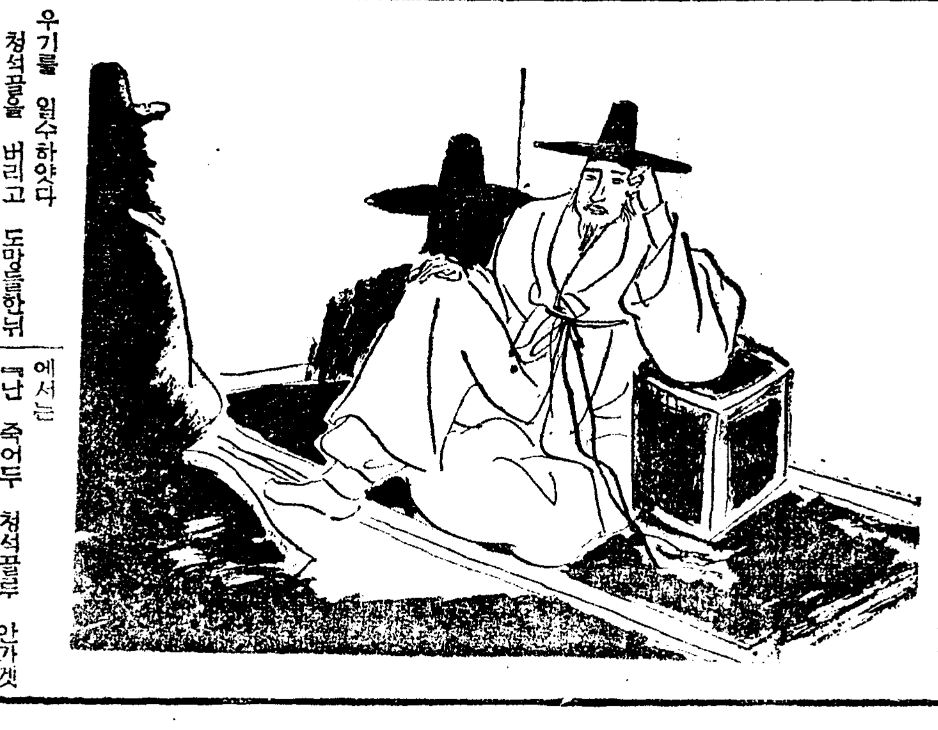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由
九三六八	忠南保寧郡靑蘿面	九月七日	廢業
一一七四四	京畿楊平郡靑雲面	九月三日	拋棄

林巨正

火賊 (91)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一

꺽정이가 광복산 들에구석에 엎드려잇기가 답답하야 서울로 올라올때 곽측 한 달포 놀다가랴고 생각한것이 느게 낙봉이 나서 가진오입을 다하고 종내 기집을 세식이나 어더서 각 살림을 시키는 동안에 세월이 가는줄을으게 오륙삭 지나갓다 그동안 광복산 도중에서 꺽정이에게 오라는 재촉이 업섯든가 도중에 비록 대리 괴수가 잇기로소니 정작 대장이 오래 박게나와잇는데 엇지 재촉이 업섯스랴 광복산재촉은 성화가터 도 꺽정이가 갈생각을 아니하고 서울에 눌어부터잇섯다 도중에 일이잇다고 재촉이 오면 꺽정이는 그일이 무슨일인가 알어보고 서울안저서 지휘할건 지휘하고 조처할건 조처하되 멀리서 지휘하기 거북하고 조처하기 어려운 일은 뒤로 밀우기를 일수하야다

청석골을 버리고 도망을한뒤에 관군이 빈 소굴에 들어가 불을 질러서 도회청과 살림집이 모다 타서업서진까닭에 광복산서 떠날때 청석골로 다시갈까 당곳으로 옮어갈까 이것이 여러두령들 사이에 중대한 공론꺼리가되엇는데 두가지 의론이 맛서서 서로 일치하지 못하얏다 다시 청석골로 나가서 청석골패의 전날 성세를 회복한뒤에 어느산성 한자리를 빼아서가지고 이진(移陣)하는것이 득책(得策)이라고 주론한사람은 서림이요 이왕 청석골에 오래잇슬 작정이 아닌바에 좋단 자리에 새로 배포 차리느라고 나를 가서 차지하고 웅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론한사람은 리봉학이나 두의론에 맛서게되도록 분두분두 세우고 뻑뻑 우긴사람은 서림이와리봉학이가아니고 늙은오가와 곽오주이엇다 늙은오가는 청석골에 정이 들어서 당곳으로 옮머갈생각이 적은 사람이라 서림이의 득책이란것도 내심에는 다할당치못하나 그나마 조타고 서림이의 말을 찬동하고 곽오주는 서림이의 말이라면 언제든지 뒷족으로 잘나가는사람이라 리봉학이의 상책이란것이 상책인지 아나지도 몰으면서 그대로 더펴노코 리봉학이의말에 부쩌처나 주론한사람들 제처노코 들이서로 맛부터서 청석골로 가느니 못가느니 말다툼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엇는데 어느때는 곽오주가 이면업시 말뒤받는데 늙은오가가 회중이 나서

『대체 자네가 무얼 안다구 들하면 나서나 자네는 구-부 가만히 좀잇게』

곽오주를 꾸짓기도하고 또 어느때는 늙은오가가 구변으로 무아세우는데 곽오주가 풍닥지가 나서

『서종사 말이라면 당신은 사족을 못씁디다 당신하구 더 말하기 실소』

와가리 말다툼하는중에 늙은 늙은오가를 밧주기도하얏다 이 오가의 입에서는

『달은사람 다 안가면 나혼자라두 청석골루 갈텔세』

하는말이 나오고 곽오주의 입에서는

『난 죽어두 청석골루 안가겟소』

하는말이 나오도록까지잇섯다 일인족 일직 결정짓고 미리 준비차려야할일인데 꺽정이의 말을 들어보지안코 결정지지못할 것은 고사하고 꺽정이 아니고는 늙은오가나 곽오주나 하편을 눌르고 결정지을수가 어습으로 꺽정이더러 속히 나려오라고 재촉하려 황천왕동이가 한몽으로 여러 두령을 대신하야 서울을 올라와섯다 꺽정이의 나려가야만할 사정을 황천왕동이가 중언 부언 말할때 꺽정이는 듯는지 마는지 건정으로 들으면서 속으로 광복산떠날공론을 뒤로 밀우어두게하라고생각하고

『개춘이나한뒤에 어듸로든지가게될테데 공논이 어느새무슨 긔급할 공론이란말이냐 미리 준비한다니 준비할일이 무어냐 가령 집을 새루짓기루하구 여사를 시키드래두 해토나돼야지 나는 아직 서울좀 더잇다 가겟스니 그리알구가거라 그러구 가서 공연이수선을 부리지말라구 내말루일러라』

하고 말하야 황천왕동이를 재촉은보람업시 그대로 돌려보내섯다